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9:1: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2026년 6월 21일 (661호)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6/14/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명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515.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은숙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3:6-18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믿음에서 난 사람들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6/28/26	7/5/26
최빅토리아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어리석도다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복음은 바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업적과 노력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서 자기 만족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종교화 되어 버리는 기독교를 막아내기 위해 바울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번째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사용될 때입니다. 그것을 무지하다. 어리석다라는 단어로 성경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다인데 이것은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말씀을 배운 자들을 향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망각하고 잊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잠자는 영을 깨우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에 이른 것이냐고 묻습니다. 또한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구원도 성령도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성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면 성화의 과정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번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새번역성경은 “체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개역성경에는 “괴로움”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직역을 하면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먹고 잘사는게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이라는 의미로 새번역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 체험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만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그들은 고난을 피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꿨던 것입니다.

네번째 질문은 그 고난 속에서 누가 함께 하고 계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는 고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고, 신앙생활을 하는게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리석도다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어찌 다른 복음에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